고용노동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PRIL 2024
Vol.587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을 존귀하게

미술크리에이터 **이연**

월간 내일

04 April 2024
Vol.587

Contents

2024.04

Vol.
587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을
존귀하게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Special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04
토픽에세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존중의 시대'

08
우리사이
'직장 내 괴롭힘' 이것만 알고 있자

10
어쩌다 우린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다
㈜노블컴퍼니

14
내일인터뷰
그림으로 소통하다
이연 미술크리에이터·작가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고용아카이브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면?

22
내일, 매일
빅데이터, 모두가 공부해야 하는 미래 지식
조성준 빅데이터전문가

26
일터애(愛)서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 3천만 원 받아가세요!

29
기자단이 간다
정책기자단 발대식

30
희망브릿지
다시 시작하다, 더 큰 행복을 맛보다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4
내일, 플레이스
신당동 바이브 속으로

38
트렌드 프리뷰
금보다 귀한 시간 '시성비의 시대'

40
MOEL 뉴스

44
팩트풀니스
고령화를 위한 정책과 경제의 변화

46
잡, MBTI
웹툰작가·만화가

48
낼툰
존중 & 나쁜 경험도 좋은 이유

50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존중의 표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존중하고 때로는 존중을 잊는다.
존중은 특별하지 않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존중의 시작이자 가치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직장,
본 적은 없지만 ‘좋아요’를 누르는
소셜이라는 세상의 수많은 친구들까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전하는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

책 <우리에겐 존중이 필요해>에서
저자 라인하르트 할러는
“존중 결핍의 문제는
단지 자기 가치를 의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아지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는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공격 성향을 증폭시킨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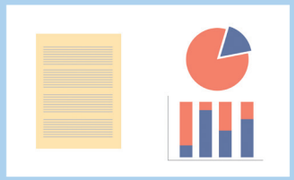
직장과 가족, 사회적 그룹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도 결국은
존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존중의 문화는 곧 자신을
발전시키고 타인과의 공감을 잇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것만 알고 있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아직 근로자들에게는 익숙지 않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테라노무사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도 법조항 요건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었는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약 77%는 직장 상사로 응답한 바 있다. 아직도 수직적이며 경직된 우리나라 직장문화, 직급과 나이가 나보다 높고 회사에 오래 다닌 상사에게 ‘NO’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부하직원이 몇이나 될까. 다만 ‘관계의 우위성’은 조금 다르다. 다수의 부하직원이 1명의 상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중 ‘직장에서의 우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시와 명령, 업무량 분배, 반복되는 보완요청 등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지시를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 등의 불필요한 거친 표현을 하고, 회사 일과 관련 없는 감정적인 문제로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물건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 폭행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는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한다. 회사에 나를 괴롭히며 욕설을 내뱉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출근이 얼마나 끔찍할까.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다면 근무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이 보완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위 내용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

#1 직장 내 신고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제3자가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고충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지체 없는 객관적인 조사와 조사기간 내에 피해근로자 등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조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선 안 된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의 조사, 조치 의무 등과 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 (직장 내 괴롭힘 등)**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명예훼손, 모욕,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 것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나 행위, 본인의 대응상황, 주변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 등을 자세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녹음과 동영상, 문자, 이메일, 병원 진료기록 등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법률이나 제도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넷 EAP프로그램(☎080-080-5988),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를 통한 심리상담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다

㈜노블컴퍼니 이호희 차장·윤혜림 과장

**‘직장인이 다니고 싶은 회사’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할 맛 나는 회사’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노블컴퍼니는 인사팀과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다니기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청년 친화 강소기업’의 선정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기본이고, 임금 수준이나 워라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도 갖춰야 한다. ‘2024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노블컴퍼니의 인사담당자 이호희 차장과 윤혜림 과장을 만나, 노블컴퍼니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복지 정책

노블컴퍼니는 2011년 3월 설립 후 업력 13년의 광고 노하우를 보유한 광고대행사이다. 네이버 검색광고와 GFA 공식 대행사, 카카오 공식광고 대행사로 검색광고와 바이럴, SNS, DA, 브랜딩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연계하고 있다.

“열린 소통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적용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휴가나 연봉제도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수상했습니다.”

노블컴퍼니는 매년 35%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 시대상을 고려해 실천하는 부분이다. 특이한 점은 임금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와 연봉제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해진 연봉제도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기업 분위기에서 ‘연봉제도 선택’이라는 기회는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 효율성의 조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상당히 중요한 광고대행사인 만큼, 노블컴퍼니는 업무 외적으로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사기진작에도 신경 쓰고 있다.

“노블컴퍼니에서는 1시간 휴가와 근무 중 30분의 추가 휴게시간, 생일자 조기퇴근, 자기개발비와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실시간 반응하고 집중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와 개인 생활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유 없는, 자유로운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는 매월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생활균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노블컴퍼니가 추구하는 임직원들의 워라밸 존중은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시간 단위 휴가는 근무 중 병원이나 은행을 다녀올 때 4시간의 반차 사용보다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직원이 직위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앱을 통한 전자결재로 신속한 승인이 이뤄집니다."

노블컴퍼니에서는 이런 복지 제도를 병행한 덕에, 이전보다 휴가 사용률이 25%나 상승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카페테리아와 안마의자 휴게공간 조성도 도움이 된다. 직원들이 업무 도중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안마의자는 근무 중 시간에 구애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오후 시간만 되면 대기 일정이 꽉 찰 정도로 안마의자존은 노블컴퍼니 내에서 인기 휴게공간이다.

'열린 소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노블컴퍼니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청년이 다니기 좋은 기업문화는 무엇일까. 이호희 차장과 윤혜림 과장은 '열린 소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말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 되려면 열린 소통을 촉진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죠. 투명한 의사결정 속에서 직원들은 회사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요. 이런 문화가 좋은 근무환경이라 생각합니다."

노블컴퍼니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 되려면 열린 소통을
촉진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죠.

에는 인사팀의 고민과 노력, 시행착오에서 시작됐다. 업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직원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는 것.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숱한 노력과 도전을 거쳐 지금의 노블컴퍼니 문화를 갖게 됐다.

"좋은 아이디어가 꼭 회사에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가 아닌, 카페와 같이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노블컴퍼니는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별장에서의 '워케이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특정 지역에 별장을 건립해,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색다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블컴퍼니는 향후 '워케이션'을 통해 보다 즐겁게 직원들이 일도 하고 분위기 전환을 통해 창의력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노블컴퍼니의 내일을 응원한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 → 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 → 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그림으로 소통하다

그림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그림을 그리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영상콘텐츠, 그림에세이라는 책의 형태, 그림에서 비롯된 인생에 관한 강연까지. 이연 미술크리에이터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는 법을 알고 있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흔히 크리에이터, 영상 콘텐츠라고 하면 화려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소재로 채운 장면이 생각난다. 초 단위의 짧은 영상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오락처럼 뒤돌아서면 기억에 남는 것은 딱히 없다. 매일 꿈을 향해 노력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자 전진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진솔한 위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그림을 그리는 이연 미술크리에이터의 영상콘텐츠를 보고 듣고 있으면 이내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

Q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작가님의 봄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요?

한동안 계속 바빴습니다. 간만에 여유로움을 즐기며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에 2개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어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요. 주최 측의 도움과 리딩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크리에이터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림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그림에세이 책 출간, 강연, 전시 정도가 있습니다.

Q 처음 도전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혜화에서 열었던 '아워 실루엣'이라는 개인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지만 건물 하나를 다 쓰기도 했고. 이연이 직접 도슨트를 하니 놀러 오세요. 구독자분에게 말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500명이 오셨는데 감사하기도, 신기하기도 했던 경험이자 활동입니다.

Q 어느덧 백만 구독자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설렘과 부담감이 동시에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

잖아요. 성장은 하되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숫자가 분모처럼 느껴집니다. 조회 수는 분자 같은 거고요. 분모가 커질수록 분자가 자꾸 작아 보이는 거죠. 구독자가 이 정도면 이만큼의 조회 수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독의 숫자 자체가 저를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이 사람을 보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 좀 기대가 된다, 이럴 때 구독을 누르잖아요. 숫자가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초기의 그림유튜버 이연과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약 93만 그림유튜버 이연, 어느 것이 달라지고 여전히 같을까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마음가짐부터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예로 들면, 인턴의 마음과 차장급의 선배 마음이 같을 수 없잖아요. 초반에는 제 자신이 재미있는 주제, 소재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콘텐츠를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Q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풀어나가는지요?

그림에 관련된 콘텐츠로 강연을 할거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초반에는 가끔 했지만 지금은 동기부여, 자기계발을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강연도 제가 만드는 콘텐츠란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작은 강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대단한, 어려운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담은 에세이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Q 2030부터 4050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강연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지요?

강연에서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불안 관련해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 자신도 불안하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어떤 도전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답변 드립니다. 불안은 적어도 나아가는 일이니,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Q 평소 힘들 때 그림일기를 많이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일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에서는 바쁘다보니 생각할 겨를이 없기 마련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죠.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만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하나의 활동이 일기라 생각합니다.

Q 월간내일 4월호 테마는 '존중'입니다. 이연 작가님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존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외면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존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존중은 자신이 혹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해주는 거죠.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빠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월간 내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저 사람은 저 일을 어떻게 한 거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능 시험에서 허무하게 한 번 떨어졌습니다. 길에 이렇게 차가 많은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도전하는 것처럼, 남들 다 따는 면허증이니 '일단 한 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어떤 도전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안은 적어도 나아가는 일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면?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으로 해결하기

기업이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인재채움뱅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알선 기관인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을 '인재채움뱅크'로 바꿨으며, 업무방식도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뱅크란?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해드리는 취업지원시스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 주소(https://matchingbank.career.co.kr)

인재채움뱅크로 맞춤인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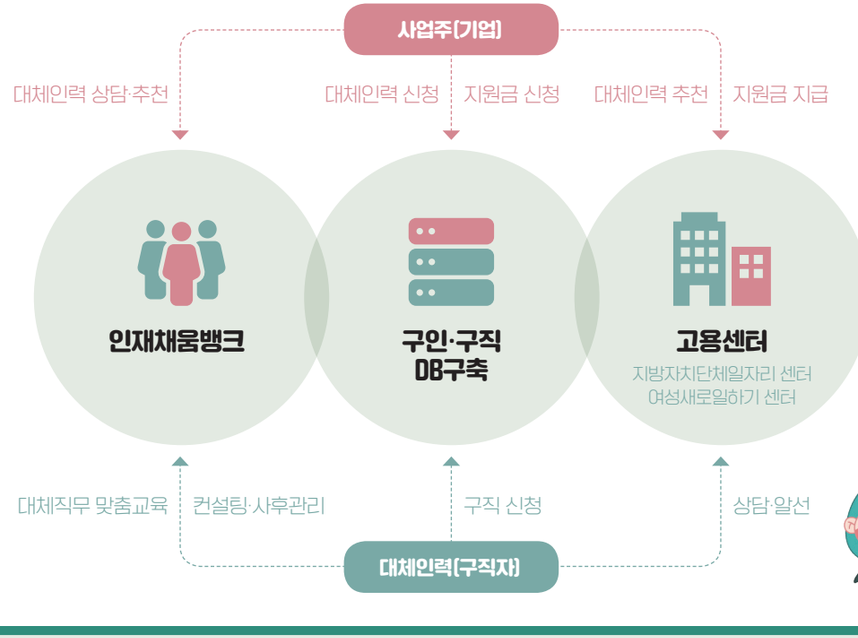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나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체인력 사용지원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과 맞춤인재 추천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맞춤인재 추천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기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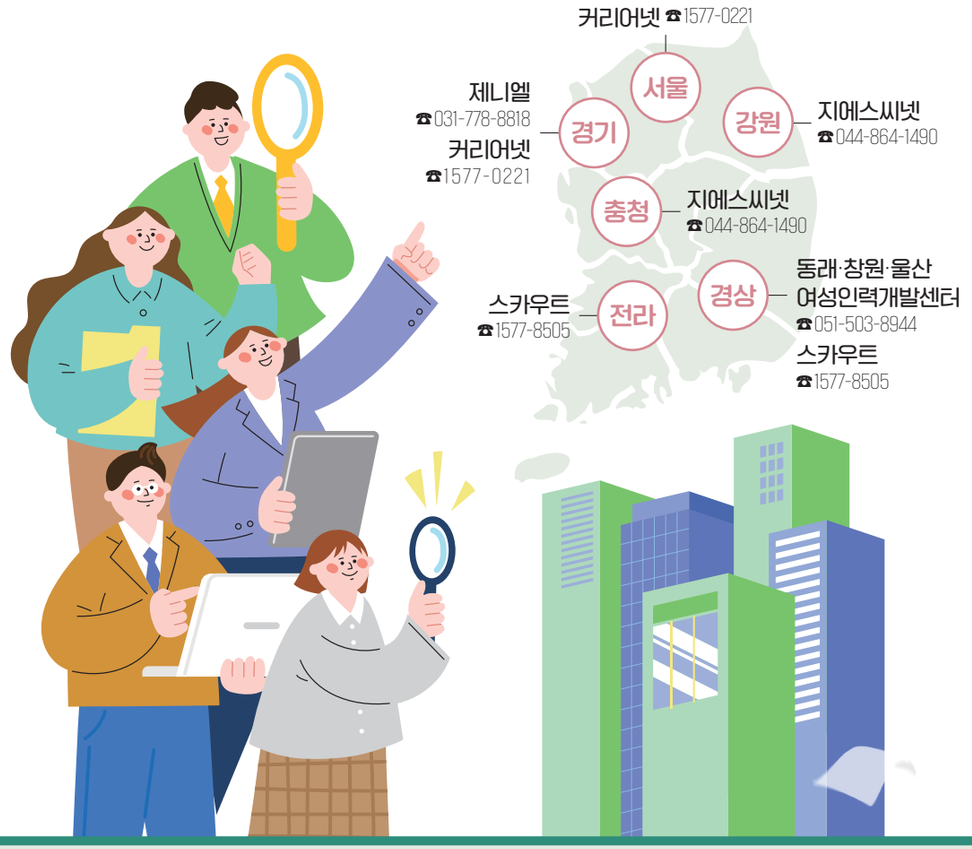


전국 5개소 권역 확대

올해부터는 인재채움뱅크의 운영기관을 2023년 3개소에서 2024년 5개소로 확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맞춤형 채용서비스

전국 5개소 [인재채움뱅크]에서 권역 서비스를 체크하세요!



대체인력 채용 시, 월 80만 원 지원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한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다.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이다.

2024년 7월부터는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지원이 시행된다. 대상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이다.

대체인력지원금

구분	내용
지원 대상/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❶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❷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이때 대체인력 고용기간은 30일 이상
지원 내용	❶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❷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 원 (업무 인수 인계기간 월120만 원)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은 120만 원)

빅데이터, 모두가 공부해야 하는 미래 지식

조성준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는 인문과 사회, 의료, 스포츠 등 대부분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전공과 무관하게 공부해야 하는 미래 지식이 된 빅데이터. 진로를 탐색하는 고등학생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현업에서 일하는 직장인까지, 빅데이터는 단계별로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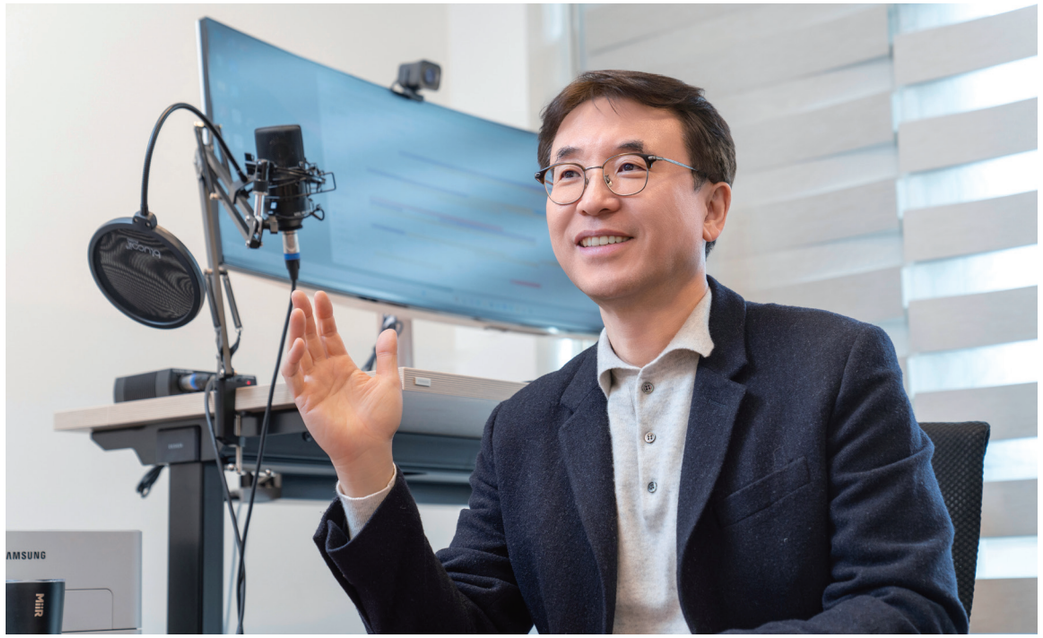
과거에는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풍부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의사 결정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빅데이터 등장 이후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근거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이자 데이터마이닝센터 조성준 센터장을 만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었다.

Q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교수님의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빅데이터의 이해'라는 수업을 가르칩니다. 산업공학과 전공 수업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뽑는지 전 과정을 지도합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여러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강의를 의뢰하는 산업군을 살펴보면 제조와 금융분야에서의 관심이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임직원들에게 빅데이터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out_
조성준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마이닝 전문가'이자, 서울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교수이자 빅데이터AI센터장이다. 그는 100년 전에는 문맹, 30년 전에는 컴맹이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문맹'을 일컫는 '데맹'이 있다고 말한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교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커리큘럼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제가 되면서 혁신적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관련 과목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AI 인공지능 대학원도 있고요. 여러 대학교의 산업공학과나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는 꾸준히 늘고,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Q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과 직무를 설명한 책인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을 내셨는데, 계기가 궁금합니다.

갈수록 빅데이터는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커리어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도 많고 대우도 좋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수고요. 빅데이터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대학교 전공이 고민되는 청소년, 이미 전공을 정해 공부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기업에서 이미 일하는 직장인까지. 빅데이터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웠습니다.

Q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 하면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이렇게 세 학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 전문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 분야의 데이터를 어떤 방향과 콘셉트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Q 빅데이터 전문가에 어울리는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에 적합한 성향은 우선 호기심이 많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하면서 주변과 자연스럽게 잘 녹아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상사의 말씀이 옳겠지", "그분이 10년 이상을 일하셨는데, 뭐가 더 있겠어?" 이런 태도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피해야 할 자세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상식

빅데이터 전문가 관련 전공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가 대표적이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각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웹 크롤링', '프로그래밍', '수학 및 통계학', '머신러닝', '데이터 파이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의 직업 종류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의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빅데이터 직업은 다양하다.

Q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양은 늘어납니다. 지금은 빅데이터의 초창기라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빅데이터 활용을 잘하는 회사들은 하나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봅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를 세심하게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와 관심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 3천만 원 받아가세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을 신설하였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올해부터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3천만 원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있던 개인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더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유형을 신설하였다.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이 추가되어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이나 야근 줄이기,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근로계약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도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의 폭을 넓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제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는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는지를 보면 된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도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의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실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
- **1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 **신청방법**
  ❶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❷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 단축시간 산정방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단축(요건형)과 실근로시간단축(공모형)으로 나뉜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20만 원)도 지원한다. 사전 신청이나 승인 없이 단축을 실시한 후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 등으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한다.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을 제한한다.

'실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했을 경우 지원(월 30만 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때, 전자카드나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고, 출퇴근 기록 기계가 고장나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 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 시 해당 3개월은 지원되지 않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소정근로시간단축	실근로시간단축
지원요건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 15~30시간 이하)	사업(장)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1년
지원인원	최대 30명	최대 100명
지원액	① 단축 장려금(월 30만 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월 20만 원)	단축 장려금(월 30만 원)

제16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시작된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지난 3월 발대식과 위촉장 수여를 통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활동초기에 연대감 도모를 위한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5월호부터 <기자단이 간다> 코너에는 정책기자단이 직접 쓴 기사가 게재 될 예정입니다!

3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중구에 위치한 LW컨벤션 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6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제16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5명과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발대식과 블로그 글쓰기 강의가 주를 이뤘고, 기자단 활동 관련 안내와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뤄졌다. 1부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 2부에서는 이기용 작가를 초청해 글쓰기 강의를 마련했다.

제16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은 올해 25명(국내 23명, 해외 2명)을 선발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중심으로 정책 관련 기사 작성과 이슈 현장취재의 주기적인 활동을 통해 공감대 확산,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한다.

다시 시작하다, 더 큰 행복을 맛보다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황성수·서동환·조지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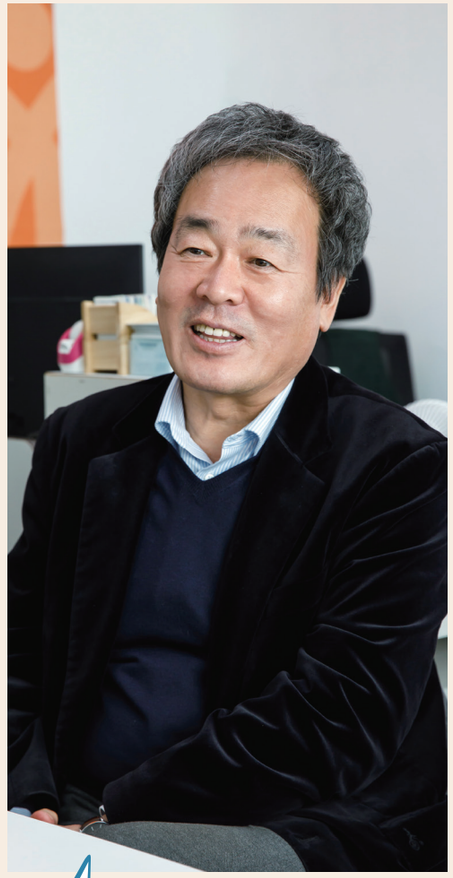
별사탕학교는 '초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은 50+세대의 가능성'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퇴직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노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별사탕학교. 이곳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한 황성수·서동환·조지희 씨를 만나 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김경수

보통의 사람들에게 노년이란 외로움과 두려움, 경제적 불안이 가져오는 걱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별사탕학교에서 만난 세 사람은 달랐다. 은퇴 이후 혹은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기차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에너지 덕분이다.

일하다, 다시 나를 찾다

사회적기업 구민초에서 경영지원·마케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환 씨와 사회적기업 나들이에서 발간하는 'SEN사회적경제뉴스'에서 편집위원과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황성수 씨는 별사탕학교에서 수행한 신중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재취업까지 성공했다. 별사탕학교에서 회계와 수행사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조지희 씨는 직업상담사로 일하던 중 연이 닿아 별사탕학교에 합류한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이력과 경험을 살려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큰 감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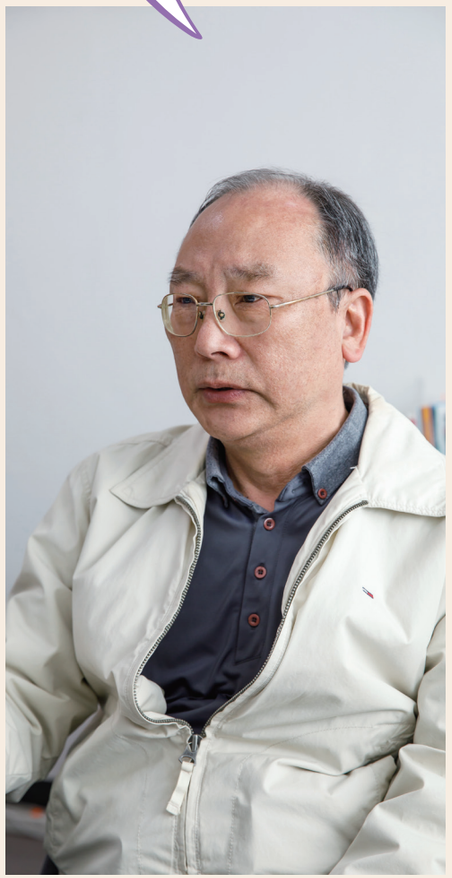


서동환

은퇴 후 여행작가로 제2의 삶을 꿈꾸다가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깨달았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별사탕학교 신중년일자리사업 2기를 수료, 재취업에 성공했지요. 현장에서 제가 그간 쌓아 온 노하우와 이력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력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할 수 있었죠. 더 밝아지고 활기차졌다며 가족들이 반가워하고 저 역시 중도를 지키는 언론인으로서 다시금 보람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성수



조지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상담사로 일을 바꿨습니다. 일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했죠. 마침 별사탕학교가 태동하던 무렵 감사하게도 그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딱히 쓸 일이 있을까, 궁금했던 자격증이 지금은 별사탕학교에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의미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것자체로 의미있지 않을까.

"저는 언론계에 몸담아 오면서 YTN 본부장, 인천교통방송 대표 등을 거쳤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력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할 수 있었죠. 더 밝아지고 활기차졌다며 가족들이 반가워하고 저 역시 중도를 지키는 언론인으로서 다시금 보람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성수 씨의 말에 서동환 씨도 공감한다.

"저 역시 대기업, 글로벌기업, 공공기관 등을 두루 거쳐 왔습니다. 은퇴 후 여행작가로 제2의 삶을 꿈꾸다가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깨달았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별사탕학교 신중년일자리사업 2기를 수료, 재취업에 성공했지요. 현장에서 제가 그간 쌓아 온 노하우와 이력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황성수 씨와 서동환 씨는 별사탕학교에서 중장년 근로자로 여러 성과를 내며 값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건 조지희 씨도 마찬가지다.

"웅진씽크빅 팀장으로 일하다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상담사로 일을 바꿨습니다. 일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했죠. 마침 별사탕학교가 태동하던 무렵 감사하게도 그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딱히 쓸 일이 있을까, 궁금했던 자격증이 지금은 별사탕학교에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고령시대와 비례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건 당연지사. 오늘 모인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야 해요. 일을 하고 싶다면 과거의 화려했던 나를 잊어야 합니다. 우선 일자리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중소기업에 자신이 일할 곳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쓰레기통이 꽉 차 있다면 먼저 일어나서 비울 줄도 알아야 하지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싶겠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꼭 있거든요. 욕심을 내려놔야 해요."

황성수 씨의 말을 서동환 씨가 이어 받는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 세대가 융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소득까지 얻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혈기왕성한 시절의 일만큼이나 지금하는 일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세 사람.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노년은 행복, 그 자체였다.

Mini Interview

박명희 이사장

별사탕학교는 시니어, 중장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재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분들과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매칭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중장년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지요.

현재 근로자 수는 209명이며 '텃밭관리', '어린이집 환경도우미', '우체국 행정업무지원', '시니어컨설턴트'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계속해서 노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나 중장년층 어르신들은 '지식', '기술', '태도'라는 장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한 기업에서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나이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신다면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와 콘셉트가 만나면 특별한 공간이 된다

신당동 바이브 속으로

신당동에 가면 '힙하다' 불리는 을지로와 성수동에 없는 감성이 느껴진다. 독특한 콘셉트의 편집숍과 간판 없는 가게, 싸전거리 사이로 갑자기 등장하는 카페와 식당. 골목길 어느 곳도 예상되지 않아 새롭고 신선하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과거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분명했다면, 이제는 저마다의 취향을 즐기는 문화로 분산되고 있다. 신당동이 그렇다.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만나 탄생한 거리. 알고 보면 신당동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무당과 떡볶이, 쌀가게의 독특한 컬래버레이션

먼저 신당동이라는 동명에 대한 이야기다. 옛날 마을에 무당들은 신당을 모시고 살았다. 신당과 발음이 같은 '신당(新堂)'으로 표기 한데서 유래됐다. 두 번째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이 골목은 1970년대 후반부 생겼고,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지금도 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한 마복림할머니집이 있는데, 그 할머니 말에 따르면 1953년부터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추장만 넣어 만들던 떡볶이가 지금은 시대의 입맛과 변천사를 겪으며 치즈와 계란, 쫄면 등 다양한 식재료와 만나며 간식에서 요리로 발전했다.

신당동에 가면 오래된 쌀가게를 쉽게 볼 있는데, 이 일대가 1950~1960년대 서울 최대의 양곡시장이 자리했던 곳이다. '싸전'은 쌀가게를 말한다. 현대창업주 정주영 회장도 신당동 거리에서 그의 첫 사업체인 쌀가게 '경일상회'를 운영했다. 때문에 신당동 곳곳에는 쌀가게가 존재하고, 쌀창고로 쓰던 공간을 개조한 식당이나 카페 등의 공간이 이색적인 문화로 재탄생되고 있다.

냉장고에 걸린 옷,

점집 콘셉트 칵테일바

과거 소수의 떡볶이맛집으로 소문난 가게 하나로 신당동떡볶이타운이 형성된 것처럼, 최근 신당동이 주목받는 이유도 비슷하다. 신당동의 유명한 베이커리 맛집 중 하나는 쌀 보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독특한 내부공간으로 재창조했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과자점도 오래된 기와 건물을 사용해 인테리어 예쁜 디저트 맛집으로 인정받았다. 신당동의 무당이라는 문화와 역사를 접목해 가게 외관을 무당집 콘셉트로 꾸민 칵테일 바도 있다. 목재 단상 위에 신상과 촛불, 새끼줄 장식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지하철2호선 신당역 1번 출구로 나와 2분 정도 걸어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서면 쌀가게와 가구점이 혼재된 골목길 사이로 신당동의 핫플레이스들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 튀는 것 같지만 주변 거리와 어우러진 모습이 신당동 거리의 묘미다. 미국식 그로서리 마트 콘셉트를 표방하는 한 상점은 겉보기에 식재료만 판매할 것 같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냉장고에 옷이 걸려 있고, 신선식품 진열장에는 채소나 요거트 대신 다양한 소품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얼핏 보면 시장 내 위치한 슈퍼마켓 같은 것이 특징이다. 인근 다른 가게들처럼 건물의 외형은 살린 채 내부만 고쳤다. 주변 시장이나 상점들과 위화감이 전혀 없는 것도 인상적인 풍경이다.

쌀가게 앞, 갑자기 등장하는 유럽 빈티지숍

믹스매치 콘셉트의 다양한 숍을 구경하는 것도 신당동 거리의 감상 포인트다. 유럽을 연상케 하는 한 가드닝 편집숍은 건물의 뼈대만 남긴 채 내·외부를 새롭게 뜯어고쳤다. 바로 주변에 쌀포대가 쌓인 오래된 쌀가게와 시장 내 가구점 사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프렌치 감성을 구현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 위치한 만큼,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유럽 빈티지 찻잔과 그릇, 인테리어 소품 등이 부각되게 내부 자체를 유럽의 한 편집숍이라는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췄다.

'힙당동'이라 불리는 일대는 신당역 1번 출구 앞부터 서울중앙시장까지이다. 오래된 쌀가게와 전통시장, 가구거리 사이에는 칵테일바와 베이커리, 카페, 식료품점, 소품숍 등 이색적인 느낌의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싸전거리였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1층 상가 대부분이 도매 상가나 쌀가게, 창고 등이라 규모가 크고 층고가 높다. 덕분에 신당동에는 개성 넘치는 콘셉트의 여러 유형의 숍이 존재한다. 신당동은 기존 유동 인구인 장년층과 '힙'한 분위기를 원하는 젊은층, 인근 아파트 거주민이 뒤섞인 거리가 특징이다. 편안한 분위기와 여유, 인간미를 느끼고 싶다면, 봄날의 어느 날 조용히 이 거리를 방문하면 좋겠다.

TIP

내일이 전하는 아이디어ONE

골목감성이 꾸준히 뜨는 이유에 대한 해석

한 경영학과 교수는 MZ세대가 레트로 감성을 추구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 '옛것을 새로움'으로 인식해서라고 분석.

로컬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정부 차원에서도 신흥 로컬상권 육성을 위해 지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진행.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문화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상권으로 브랜딩하는 사업.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여느 때보다 실감 나는 요즘이다.
더 나아가, 시간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콘텐츠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장보기, 빨래, 청소, 심부름까지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글 한국경제매거진 강은영 기자

금보다 귀한 시간 '시성비의 시대'

시간의 가성비

똑똑한 시간 소비 따지는 MZ

"어제 환승연애 마지막화 봤어?", "아 그거 너무 길어서 나중에 몰아보기 보려고". 요즘 흔한 MZ세대의 대화다. 본방 사수는 요즘 듣기 힘든 단어가 됐다. 프로그램 시작 시간에 맞춰 TV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던 때는 지난 지 오래다. 이제 콘텐츠 소비의 '때'를 결정짓는 주체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됐다.

유튜브와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 각종 OTT(Over The Top) 플랫폼 덕분이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대다. 게다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숏츠 등 점점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하는 콘텐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조정해 시청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3개월 이내 유튜브, OTT 시청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69.9%가 영상을 빨리 감기로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 대비 성능, 즉 '시성비'를 따지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시성비는 일본의 'Time Performance(타임 퍼포먼스, 타이파 タイパ)'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타이파는 일본에서는 이미 2022년 신조어 대상을 받은 개념으로, 가성비를 뜻하는 'Cost Performance(코스트 퍼포먼스, 코스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고자 하는 현상, 더 나아가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짧게 끝내려고 하는 풍조를 가리킨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역시 책을 읽어 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강의가 비는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대학생을 위한 '타이미(タイミー)'가 인기를 끄는 등 시성비가 노동 시장과 산업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소정의 비용과 기꺼이 바꿀 의향이 있는 '내 시간'

요즘 현대인은 정말 바쁘다. 출근도 해야 하고, SNS도 해야 하고, 뉴스나 기사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아야 한다. 유행하는 콘텐츠나 영상, 밈도 알아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은 너무도 한정적이다. 지긋이 앉아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곤 한다. 유튜브 검색창에 '1분 요약'이나 '결말 몰아보기'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이 뜨는 이유다. 유튜브 프리미엄 역시 시성비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다.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 대신 구독료를 지불하고 더 빠르게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겠다는 심리인 것이다.

시성비는 비단 콘텐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장보기와 빨래, 청소, 집 정리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에 청소나 세탁 등의 가사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앱 시장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미소·청소연구소·대리주부·런드리고·오늘의분리수거 등 홈서비스 앱을 설치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20년 4월 120만 명에서 작년 4월 기준 3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돈으로 시간을 똑똑하게 소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한 트렌드를 적절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서도 또 다른 기회요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서비스 앱 종류

런드리고	미소	해주세요	빼기
드라이 클리닝부터 수선, 프리미엄 케어 등이 가능한 모바일 세탁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가사도우미, 정리수납, 방문 손세차, 에어컨 청소 등 가사 O2O 플랫폼	장보기, 설치, 조립, 돌봄 등 심부름 서비스 중개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방문이나 스티커 없이 모바일로 대형폐기물 및 의류, 생활폐기물 수거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01
일·생활 균형, 국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 모색 세미나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임을 강조했다.

02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접수·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03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시범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3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시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자치단체(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와 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2024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2024년 72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기업·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고용률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고용 동향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04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5
근무혁신으로 근로자 늘고, 매출액도 증가

지난 3월 7일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2023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내면서, 그중 하나인 ㈜키즈스콜레를 이정식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기업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유연근무 확대, 초과근로단축, 연차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 정부가 그 결과를 평가하여 매년 100개소 내외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유연근무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청년 친화적이며, 일·육아 병행과도 밀접하다"면서 "이날 장관의 ㈜키즈스콜레 방문은 지난 3.5. 「청년 정책 민생토론회」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06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이 있다.

07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이 지난해 실시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들이 담긴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2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안실단을 전국 39개 지역별로 출범시켰다. 이번 사례집에는 그간 '안실단'이 국민과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개한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담겨있다.

08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전 세계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배경만 살펴보면 노인의 증가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고령화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바쁘다.

글 이경희 **정리** 편집실 **참고**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TRA 외 다수

고령화를 위한 정책과 경제의 변화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고령화, 국가 전반을 흔들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로 판단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로 정의내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20%에 근접한 수치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은 2023년 12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32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8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증가세다.

고령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즉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당연히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경기침체는 생활비 증가, 실물자산에 편중된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특히 의료·복지, 연금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영향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힘든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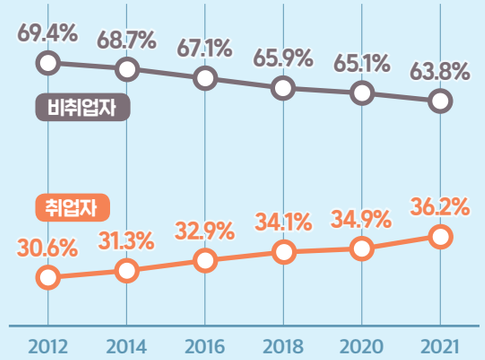
선진국은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 홈케어 시장은 2027년에는 1605억 달러 규모까지 치솟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높은 성장률은 빠른 노인 인구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미국 기업들은 홈케어 서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미국 최대 소매 약국인 CVS파머시를 보유한 헬스케어 기업 CVS헬스는 최근 홈케어 서비스 기업을 인수했고 아마존,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등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홈케어 시장은 인력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은 진즉부터 고령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내놓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 포괄시스템을 운용해 노인을 위한 의료와 간병을 지역 단위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0년 65세 의무고용을 70세 고용노력 의무로 바꿈으로써 사회활동을 연장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푸드테크이다. 음식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하는 푸드테크 기업 중 하나인 '실버커넥트'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 및 환자를 위한 식단을 제공,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니어 헬스케어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하는 고령자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초고령화 사회 대비하는 국내 시장과 국가전략

국내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도 활발하게 확장되는 사업분야 중 하나다. 최근 시니어 분야 스타트업은 노인들의 생활 속 불편에 주목,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니어 돌봄 플랫폼 '케어닥'은 건강한 일상 케어를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출시해 요양과 간병을 넘어선 서비스를 선보인다. '리무빙컴퍼니'는 운동분석기를 통한 시니어 맞춤형 1:1 헬스케어 서비스와 AI 기반 시니어 근감소증 예방·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호평 받고 있다.

고령화를 대비한 국내 정책도 활발하다. 최근 정부는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첨단바이오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는 기술이다. 먼저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로 향후,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과 난치병 치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써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툰작가·만화가

풍부한 상상력으로 콘티 짜기가 재미있다면

최근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 그림으로 작품성 높은 웹툰들이 많다. 만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독특한 소재는 물론 기발한 상상력을 지닌 웹툰 작품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만큼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웹툰작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을까.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 외 다수

INFJ의 특징

#독립적 #내면에 대한 통찰력
#독창성

"복잡한 내면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통찰력을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요."

INFJ는 내향적이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으면서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향형 I의 경우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내향형 I ✓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N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직관형 N ✓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T 나의 사고 성향은?

사고형 T	감정형 F ✓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P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	인식형 P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웹툰작가의 성향

창의력	일상의 소재로 참신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미적감각	잡지나 그림책, 서적에 나온 그림을 그리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토리텔링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자기통제	마감일, 새로운 작품 창작에 대한 압박을 즐기는 편이다.
컴퓨터 활용	2D, 3D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루고 싶다.	호기심	패션·영화·디자인·음악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관련 성향	• 소재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해 전개도를 작성하는 것이 재미있다. • 캐릭터/장면에 맞는 대화를 넣고 밑그림과 채색을 완성하고 싶다.
취업 분야	• 포털사이트, 애니메이션제작사, 캐릭터/게임업체 • 애니메이터,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현재 웹툰의 인기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분위기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웹툰 작가들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생성이나 스토리라인 작성 등에도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독자 맞춤형 서비스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하는 일과 업무 환경

웹툰작가는 풍부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만화의 스토리를 짜고 이름 그림으로 표현한다. 웹투니스트 또는 웹툰작가라하면 웹사이트에 연재되는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로 이해할 수 있다. 글과 그림을 모두 그리는 작가도 있고, 글과 그림을 각자 나눠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웹툰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How To 1 웹툰 플랫폼에 직접 투고

일부 웹툰 플랫폼을 가보면 직접 원고를 투고하는 페이지나 담당 이메일 주소가 있다. 보통 홈페이지 하단에 투고란이 위치한다. 하지만 직접 투고를 받는 경우는 적으니 참고하자.

How To 2 웹툰 플랫폼 내 게시판 업로드

관련 플랫폼에 아마추어 만화가를 위한 자체적인 연재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준비 중인 원고의 장르에 따라 어울리는 웹툰 플랫폼에 꾸준히 연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웹툰 운영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

How To 3 공모전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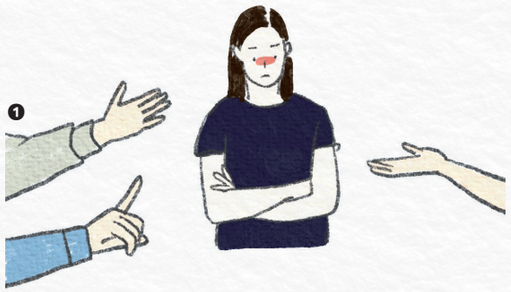
웹툰 플랫폼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 접수하는 방법이다. 우수작에게는 자체 플랫폼 연재 기회를 주므로 이 경로로 데뷔하는 작가들도 있다.

※ 과정평가형자격 살펴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씨큐넷(cq-net.or.kr)

글·그림 여혜리 작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요

존중



언젠가 한 번쯤, 존중받지 못했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기억은 가끔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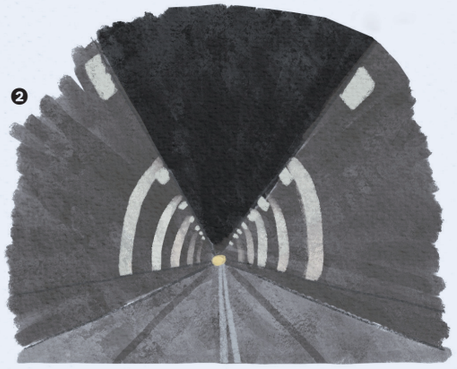
그럴 땐 "난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말(행동) 하지
말아야지"라며 다짐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쾌한 말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기도 한다.

기억하자. 내가 상대방에게 예쁜 말을 건낼 때
상대방도 나에게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나쁜경험도 좋은 이유

유명한 물건도 써봐야 그게 나한테 맞는지 어떤지 알고



칠흙같은 어둠도, 깊은 슬픔도 겪어보면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건지 새삼 느껴진다.

어두운 시기도 어쩌면 싫지만 필요한
인생의 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럴 때 꼭 큰 산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꼭 얻는 게 하나씩 있었다

내 부족한 부분이 더 또렷히 보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4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이나 워라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도 지닌 기업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Tip) <어쩌다 우린> 코너

Hint!
ㅊㄴ ㅊㅎ ㄱㅅ 기업

올해부터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무슨 제도일까요?
Tip) <일터애서> 코너

Hint!
ㅇㄹㅂ ㅇㅈㄹ 장려금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4월 19일(금)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2.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4월 19일(금)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